

기숙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전학이 답일까요?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특목고에 입학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과 떨어져서인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더라고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1학기가 끝나도 별 차이가 없네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아이를 계속 다독여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일반고로 전학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_ 이미영(49·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적 압박, 집과 떨어져 불안, 교우 관계, 학교 규율 등 힘든 요인 분석 위한 진지한 대화 필요

고교에 입학하면 학생 대다수는 중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학업량과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더구나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부고의 입학부장인 조경호 교사는 “학생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고교 입학 전까지 부모와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거나 분리불안증이 있다면 기숙사 생활이 힘들 수 있다. 특목·자사고에 진학해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성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된다. 외대부고의 경우 매우 드물게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전학을 갔다가 일주일 이내에 돌아오는 예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배명고 강재희 교사는 “학원을 가지 못하는 불안, 엄격한 학교 규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기숙사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자녀가 기숙사 생활 때문에 힘든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투정처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MORE TIP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자녀의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 교사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이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입학을 원한다면 기숙사와 통학 중 선택할 수 있는 고교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성적에 대한 압박은 대부분 부모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고교 생활을 진학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사이버대에 현 고3인 고교 졸업 예정자도 입학할 수 있나요?

사이버대는 학위 취득 기회를 놓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사이버대의 신입생 중 3분의 1 가량이 고교 졸업(예정)자라는 보도를 봤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됐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사이버대의 입학 자격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_강선화(55·경기 용인시 동부동)

내년 2월에 졸업하는 고3의 경우, 사이버대의 2022학년 신입생 모집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란 '정보·통신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합니다. 입학 자격은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일반대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부 이려닝과 황현정 사무관은 "현 고3 학생이라면 내년 3월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사이버대의 2022학년 신입생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대학과의 차이는 학습 형태에 있을 뿐 그 외 학사 운영 전반은 비슷하다. 신입생 모집 규정을 비롯, 결원 시 충원을 위한 추가 모집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재량이다. 단 기본적인 모집 전형 계획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대학에 따라서는 고교 졸업(예정)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장학금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 입학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당해 연도 고교 졸업(예정)자와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신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를 감면받는 '진학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학점 교류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국외대(서울·글로벌)의 강의를 최대 3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